

# ‘제주형 지역화폐’ 올해 나온다

### 원 지사, 23일 도정질문서 연내 도입 피력 “전국서 가장 발달·중국 수준 획기적 설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내 전국서 가장 발달한 형태, 나아가 중국서 통용되는 (모바일 결제) 수준의 획기적 ‘지역상품권 직접 발행 제도’ 도입을 공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원 지사는 23일 속개된 제주도의 회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셋째 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의 ‘지역화폐(지역상품권)’ 정책 구상을 묻은 질문에 “제주도가 직접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제도를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형태로 본격 연구해서 가급적 올해 내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직접 지휘, 총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상품권의 직접 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도는 현재 사용범위와 활용도가 제한적인 지역상품권을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점차 확대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도정질문 답변에서 관광 마케팅 관련 멤버십 포인트와 이른바 ‘핀테크’ 연계, 모바일 상품권 결제기능과 가맹점 확보 방안 등 큰 틀의 발행 구상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원 지사는 “제주는 관광산업,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제주관광의 마케팅과 관련된 멤버십 포인트를 결합시키면 전국에 없는 형태가 나올 것

로 본다”면서 이른바 ‘핀테크’ 등 첨단기술 도입과 가맹점 확보 방안도 언급했다. 이 세가지를 결합시켜 관광수입 유입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모바일로 상품권을 선물이나 인센티브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결제기능까지 하면 아마 지금 중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획기적인 제도가 나올 것이라 본다”면서 “시장상인연합회가 협조하기로 한만큼 대대적인 제주의 마케팅 인프라로써 설계해보겠다”고 자신했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원희룡 도지사가 23일 지역화폐와 관련 문종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유도기로”

### 정부-민주당, 논의 끝 확정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에 난색을 보여왔던 정부가 지원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단 지급 뒤 반납의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서 이견을 좁혔다.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경우 미뤄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

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며 “국민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당정 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는 예산편성권자가 아니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서 확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 빨리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민간위탁 의회 견제 강화 이승아 의원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23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견제기능 강화 및 의무적 감사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와 민간위탁기간이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속해 민간위탁이 이뤄지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주기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 마다 의회 동의를 받도록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오른기자

## 24일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 요지(질의 순)

### 9월 학기제에 대한 교육감 입장은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9월 학기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제주 환경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체계 진단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백서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맞춤형 학습지원학급을 운영해 학습이 느린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다문화학생 원격수업 지원 방안은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체육위원회)=다자녀 학생 지원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장애 유형과 정도가 달라 원격수업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데, 활동보조인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방안은.



### 기초학력 부진 책임지도제 방안은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책임지도제 활성화 방안은.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 계획은. 초등돌봄교실 대기 학생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실 운영을 늘릴 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지역에도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할 의향은.



### 양성평등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은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서귀포시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대안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세대가 겪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데, 양성평등교육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성학교 개편 방안은.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계획은

▶한영진 의원(민생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유치원 유아에게 지원되는 추가 교육비를 어린이집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선 도 교육청과 도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이 요구되는데, 실행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의견은.



### 보건교사 인력 확충 계획은

▶안창남 의원(무소속, 환경도시위원회)=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12곳인데, 배치 기준을 개선해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의무교육 대상인 만 3-5세 장애유아가 늘면서 특수학급 확대가 필요한데, 추진 계획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확대 추진 의향은. 등교 개학 이후 학생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은.



### 원격수업 소외계층 지원 방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영어교육도시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교육의원 선거제도 운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도교육청이 발주한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교육의원 피선거권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장기간 방치 동인초 부지 활용 방안은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동인초 부지가 매입 이후 17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학생복합점플렉스 건립 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이 6년째 표류 중인데, 이를 다시 추진할 의향은. 정책평가,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코로나19 긴급 추경 실행 의향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코로나19 대응 긴급추경 실행 의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은. 도교육청의 IB교육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예산과 인력 투입 계획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도민 신뢰 확보 방안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은.



###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한 입장은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체육위원회)=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장애학생의 직업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한 입장은. 지하수 보전교육 운영 방안은.



## 제32대 서울제주도민회 회장단 출범

# 소통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 화합으로 모두 힘을 모아 25만 서울제주도민 회원님들의 희망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32대 회장단

- 역대회장/고문  
고남화(19대) 정종화(20대) 송창우(23,24대) 송삼홍(25대) 백명운(26대) 강태선(27대)  
양원찬(28대) 변정일(29대) 김창희(30대) 한규봉(전, 장학회사장) 김인준(전, 2군사령관)  
원희룡(제주도지사)  
강창일·오영훈·위성곤(국회의원)
- 명예회장 신현기
- 회장 강한일
- 감사 송철훈(법무) 김영준(세무)
- 수석부회장 이일현
- 지역부회장  
이일현(제주시) 김보환(제주시) 한부현(서귀포시) 현인혁(서귀포시) 강대성(성산읍) 강영팔(안덕면)  
강위균(애월읍) 고경택(남원읍) 김봉중(조천읍) 김상윤(구좌읍) 김영만(표선면) 문수중(한림읍)  
윤문유(우도면) 차금심(한정면) 추경안(추자면) 허능필(대정읍)

- 상근부회장 이승석
- 직능부회장  
김동선(제일고) 김명갑(제주고) 김미복(제주여고) 김영미(신성여고) 김영진(애월고) 김충우(한림공고)  
임정환(대기고) 송여옥(세화고) 양성필(서귀포고) 양재춘(중앙고) 이용호(제주4대) 정석준(성산고)  
정성중(대정고) 현명철(남주고) 현창택(오현고)  
윤성진(기 획) 이승남(총 무) 정기홍(조 직) 김성철(섭 외) 박기찬(재 무) 김중호(교 육)  
임태홍(체 육) 강희중(복 지) 김세훈(사 업) 문용만(청소년) 임시오(국 제) 유병규(홍 보)  
김천추(여 성) 박호남(의 전) 이동휘(지역경제)  
황정윤(여성부 회장) 김영선(여성부 부회장) 현달준(산악회) 문성유(제공회) 김윤경(청년회)
- 신문편집위원장 현우중
- 회관추진위원장 양길현
- 사무국장 강수일
- 고층상담위원장 양경희
- 수석집행이사 고창민
- 지역총무단회장 함홍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전화 02-3662-2650 팩스 02-3662-2642 홈페이지 www.jejuinseoul.com

